

- 『더 좋은 일자리, 함께 만드는 인천』 -

인천시 「**일자리 청년 · 창업분과위원회**」
제12차 회의 결과

all ways INCHEON

모든 길은 인천으로 통한다

 **인천광역시**
(일자리경제과)

「일자리 청년·창업분과위원회」 제12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- (일시/장소) '20.10.19.(월) 15:00~17:40 / 인천대 창업지원단 창업다락
- (참석위원) 분과위원 7명
 - * 배석(4) : 일자리경제과장, 투자창업과장, 청년정책과 청년일자리지원담당,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위원회담당
- (주요내용) 일자리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 보고안건 논의
 - 창업마을 드림촌 추진현황 보고(투자창업과장) 및 논의
 - 제안의제 검토의견, 상정안건 추진상황 보고(투자창업과장) 등

□ 주요 논의내용

① (주요현안) 창업마을 드림촌에 대한 주요의견 <PT보고: 투자창업과장>

- (홍보방식)
 - 창업마을 드림촌은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미래를 위한 시설로 청년을 중심으로 홍보·소통이 필요(김○○ 위원)
 - * ex) 청년네트워크나 대학교 내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심과 홍보 제고
 - 창업에 관심 있는 대학생, 창업동아리에 참여하는 중·고등학생 등 미래 창업자들이 입주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(이○○ 위원)
 - 드림촌을 통해 주변을 어떤 식으로 확장(경제적 효과...)해 나갈 것인지 장기적인 계획과 비전을 제시하여 설명하면 좋을 것(이○○ 위원)
 - 명확한 설립 필요성을 스토리텔링하여 SNS 홍보 필요(위원장)
 - 주민들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(손○○ 간사)
 - * ex) 가습기 업체 '미로'처럼 인천의 유명스타트업 대표의 인터뷰를 활용
 - 그간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내용(창업자 간 만남의 장, 청년몰 구축 등)은 향후 드림촌에서 흡수·진행해야 하므로 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드림촌 설립에 힘을 실어줘야 함(임○○ 위원)
- (기본 구상안) 창업지원주택으로만 가야 하는 게 아니라면 '주택'이 아닌 창업자들 간 '공동연구시설'이나 외국 투자자를 위한 '휴식 공간'으로 바꾸면 상생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(이○○ 위원)

② (제안의제) 유망스타트업 수출인큐베이터 지원사업 부서 검토의견

○ (제안내용) <제안: 위원장>

- 인천시 유망 스타트업의 성공적인 해외진출을 위해 사무공간 임대료 및 법률·자문·네트워크 등 현지 인프라 지원

○ (검토의견) <검토부서: 투자창업과>

- 현재 중기부에서 운영 중인 수출인큐베이터 사업*으로도 수요를 충족 * 현재 전체 입주기업(204개) 중 인천시 7년미만 창업기업은 2개
- 지금은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 추후에 관심 있다면, 독립적인 공간보다는 함께 쓰는 공용공간으로 검토(위원장)

③ (심의안건) 창업자간 만남의 장(오지략) 추진상황 주요의견

○ (부서의견) 창업에 관한 포털 기능 마련 및 사용자 편의를 위해 앱(App)에서 반응형 웹(Web) 구축으로 추진방향 변경 <투자창업과>

- 단순히 앱 개발보다는 내년도 용역과제로 넣어 크게 진행하고자 함
- 온·오프라인 만남의 장 필요성에는 공감. 운영방법, 운영주체 등을 세부적으로 논의하여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면 내년 추경에 진행

○ (주요의견)

- 드림촌이 장기화되니 창업자간 네트워킹 소통창구에 대한 대안으로 '오지략'이 필요하다고 생각(위원장)
- 포털 등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들 간 자유롭게 네트워킹,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대화방이 필요(위원장)
- 청년들이 의견을 제안하고 그들 간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부족. 청년들에게는 소통 기회를 주는 것이 간절(김○○, 김○○ 위원)
- 창업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는 이미 많음. 인천시는 창업지원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정보를 업데이트·관리하는 역할을 해야 함(이○○ 위원)
- 선배 창업자가 후배 창업자에게 정보제공을 하려면 선배 창업자의 풀을 먼저 구성해야 함(임○○ 위원)

○ (기타의견)

- 작은 안건을 세밀하게 논의하기보다는 창업지원기관 간의 허브 역할 구축 등 큰 그림을 위주로 논의했으면 함(임○○ 위원)
 - * 인천시는 지원기관에 대한 허브 역할 미흡. 기관별 특성에 맞는 설계 필요
- 현재로서는 큰 그림을 그리기보다는 청년의 입장과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발굴할 필요(위원장)

□ 논의 결과

- (제5차 정기회의 보고안건) 현재 창업자들간 소통 플랫폼이 부족하다는 점이 공통된 의견으로, 현장소통, 창업협의체, 온·오프라인 만남의 장, 콘텐츠 개발 등을 모두 모아 정리·보고

□ 향후 계획

- 일자리 청년·창업분과위원회 제13차 회의 : 11월초(미정)
 - 제5차 정기회의 보고안건(안) 확정 * 상황에 따라 서면회의 가능
- 일자리위원회 제5차 정기회의 개최 : 11.27.(금) * 분과위원장 참석